9월2일~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과채류·육류·선물세트…시중보다 10%이상 싸게

"추석 쇼핑, 아줌마 축전으로 오세요"

22개 시·군 200여종 특산품 특별 할인

돌미역 33%·전복 13%·나주배 21% 등

'알뜰한 추석쇼핑, 아줌마 축전으로 오세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열리는 '제1회 아줌마 축전'에는 전남지역 우수 특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알뜰할인장터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특산품을 시중 가격보다 10~33% 정도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아줌마 축전 특별할인가'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 시·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만큼 문자 그대로 '값싸고 질 좋은 지역명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알뜰 쇼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축전에서 선보이는 특산품만 200여종에 달하며 해산물과 과일·육류, 곡물류·채소를 비롯, 주류와 선물세트 등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은 물론 다양한 선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진도군에서 내놓은 돌미역은 1가닥에 2만원으로 시중가 보다 무려 33% 싸게 판매한다. 완도군은 맛과 영양이 뛰어난 '활전복' 1kg을 6만5000원, 멸치 500g은 1만원(이상 시중가 보다 13% 저렴)에 판매한다.

과일류는 곡성에서 생산된 멜론이 10kg 1박스에 5만원으로, 시중가보다 무려 23%가 싸다. 나주 명품 '나주배'도 7.5kg 1상자에 5만5000원으로 시중가보다 21%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 담양군은 '담양포도'(5kg 3만원), '담양멜론'(8kg 3만5000원)을 각각 시중가보다 17%·11% 싸게 판매한다.

채소류도 '곡성토란'(500g 4000원), '구례오이'(1개 750원) 등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내놓는다. '해남밤고구마'(10kg), '장흥표고벗섯' (백화고·400g)도 각각 15%·10% 싼 3만4000원과 8만7000원에 판매된다.

실제 31일 광주시 서구의 대형마트 2곳의 가격과 아줌마축전에서 판매될 특산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대 30%까지 아줌마축전의 상품들이 저렴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용 세트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광양 매실엑기스' (375gX2개)는 2만원, '매실반찬세트' 2만7000원으로 시중가 보다 15% 싸다.

참기름·고춧가루·볶은깨·팥·흑미·보리쌀 등을 묶어 포장한 영암 '달마지선물세트'는 1세트에 2만원으로 20% 저렴한 가격이다. 숙취해소와 구취제거에 효능이 좋은 '장흥헛개'는 1세트(30㎖X15개)를 17% 싼 5만원에 '보성녹차 쌀유세트'(500㎖X3개)는 10% 싼 1만8000원에 판매된다.

또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 웰빙간식거리 '나주한과세트'는 500g에 4만8000원으로 시중가 보다 20% 싸고, 영광서 내놓은 '찰보리빵'(1박스 1만원)과 '모싯잎 송편'(1.2kg 1만원)도 17%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김치류는 여수의 별미 '돌산갓김치'(3kg 1만8000원)와 '고들빼기김치'(2kg 1만6000원)도 10% 싸고, 순천 '남도김치'는 5kg 2만8000원에 판매된다. 이밖에도 무안양파, 화순더덕선물세트, 고흥유자차 등도 싼 가격으로 알뜰주부를 기다린다.

/서승원선임기자 swseo@kwangju.co.kr

〈완도 멸치〉

〈강진 막걸리〉

〈나주 배〉

〈여수 돌산갓〉

〈진도 돌미역〉

〈화순 더덕〉

■아줌마축전과 시중 대형마트 가격비교 (8월31일 기준)

품목 \ 판매처	아줌마축전	A 대형마트	B 대형마트
오이 1개	750원 (구례산)	1000원 (국산)	845원 (국산)
활전복 1kg	6만5000원 (완도산)	9만8000원 (완도산)	8만9000원 (완도산)
우리밀가루 100g	282원 (구례산)	384원 (국산)	384원 (국산)
표고버섯(백화고) 100g	2만1750원 (장흥산)	2만3570원 (국산)	2만8142원 (국산)
양파 1kg	800원 (무안산)	1266원 (국산)	1164원 (무안산)

지역기업 8월 자금사정 악화

411개 업체 BSI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8월 자금사정이 추석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41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8월 광주·전남 지역 기업자금사정 조사'에 따르면 기업자금사정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6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며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90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비제조업은 82로 7포인트 하락했다.

8월 자금수요BSI는 110, 자금조달 BSI는 97로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와 4포인트 내려갔다. 9월 기업자금사정 전망BSI도 87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91, 비제조업은 83으로 각각 2포인트, 5포인트 하락했다.

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일자리 창출 '최우수'

지역브랜드사업 경진대회…사회적 기업은 '우수'

광주시는 31일 "30일 서울에서 열린 '2011년 지역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과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70여 건의 사업을 제출받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치러졌으며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31건 등 35건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전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역일자리창출 부문에 '문화콘텐츠+광·IT기업 간 융합 창조적 하모니 프로젝트'를, 사회적기업 부문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제공방육성과 연계한 수제품 판매 사회적 기업 사업화계획'을 제출했었다.

지역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 수상한 사업은 고용노동부 2012년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다 생산적인 일자리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전남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이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은 2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조7000억원)보다 12.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처음으로 두자릿수(10.5%)를 기록한 이후, 12월 24조4000억원(11.1%), 올 3월 24조6000억원(12.4%) 등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예금 취급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은 지난 2009년 9월 51.1% 점유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44.9%)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009년 12월(50.7%)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상승(55.1%)했다.

6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1.9%를 차지했다. 특히 주택대출은 지난 2009년 3월 전체 가계대출의 45.3%를 차지하던 것이 지난해 12월 50.1%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올 3월 51.5% 등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지역 13조5000억원(53.2%), 전남지역 11조9000억원(46.8%)으로 조사됐다. /임동률기자 exian@

※지면 사정으로 '박지현의 살림레슨' 2일자에 싣습니다.

보해양조 '정상화' 보인다

채권단, 창해에탄올 인수에 긍정적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다 창해에탄올에 인수 된 보해양조가 채권단들로부터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31일 오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보해양조와 창해에탄올 경영진과 산업든행 채권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해양조 경영정상화 채권단 간담회'을 개최했다.

현 보해양조 채권단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날 채권단 회의에서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보해양조의 경경정상화 방안 및 비상경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해가 현재 영업부분에서 양호한 실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며 창해에탄올의 인수로 인해 재무구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채권단은 보해의 조기 정상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임효섭 신임 경영지배인은 "창해에탄올의 자금 투입으로 그간 우려했던 자금 유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며 "자금 창출력 확대로 재무안정성을 빠르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30일 광주시 서구 상무중 건너편 '광주축협 금호운천지점'을 개설, 지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주축협 제공〉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